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소식

제52호

2013 + MAY
제261회 임시회

본 회 의
포토의정
의원논단
주요안건처리
5분발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모임
의회사무처 소식

CHUNGNAM PROVINCIAL COUNCIL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나를 행복하게 하는것들

한잔의 커피에 비스킷 하나가
나를 기쁘게 한다

한권의 책이 나를 매혹 시키기도하고
예쁜 꽃이 가득한 티한장이 나의 기분을
아주 행복하게 한다

바쁜 일과 속에 문득 달려온 문자 하나
밥은 먹었어 잘있는거지 사람들의 안부글도
청량 음료처럼 피로를 풀어 주며
나를 기쁘게 한다



하지만 더욱 나를 행복하게 하는것은
나는 네가 좋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네
이 넓은 세상에서 너를 만나것이 축복이야
너를 생각하면 왠지 행복해져 하는 당신의 말

미안해요
난 왜 그런 말을 못하며 살았을까
살아가며 잊고 사는 말들
감사해요 사랑해요 난 네가 좋아

행복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것에서 부터 온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것은 남도 행복함을
남도 행복하면 나도 행복함을
행복이 행복을 꽃피우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꾼다

-우 인 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 소식

CONTENTS

02 제261회 임시회 개회사



14 5분발언

18 상임위원회



03 본 회의

04 포토의정

08 의원논단

12 주요안건처리

30 특별위원회

34 연구모임

36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38 의회사무처 소식



| 발행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전화 | 041)635-5102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디자인 · 제작 | (주)디자인 시티

| 편집 | 총무담당관실

| 팩스 | 041)635-5009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지난 8월 8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도민 여러분 등 888여명을 모시고 역사적인 도청 개청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는 개청식을 통해 도민과 전 국민들에게 내포 신도시가 21세기 환경혜권의 중심도시로서 행복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비전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888만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100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8일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88부 8처 8청으로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8/8분기가 지나고, 벌써 8/8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만큼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운 농업 현실에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영농 행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88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사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8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입 실효성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봄햇살과 같은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888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888. 8. 8. 충청남도의회위원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운영”

예결특위, 추경편성 앞두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통과 등 안건 8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4.9일부터 18일까지 제 261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국비확보 활동 전개 및 당면 현안사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이진환(천안), 맹정호(서산), 박찬중(금산), 유기복(홍성) 의원 등 4명이, 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필(비례), 유기복(홍성), 명성철(보령), 이종화(홍성), 명노희(교육), 김지철(교육)의원 등 6명이 5분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예결결산특별위원회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관 주요재정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는 점이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조길행)는 금년 예산에 10억 원 이상 편성된 투자 사업과 2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총 282건(도청 201건, 교육청 81건)과 도청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내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교육행정 점검 부분에서는 교육청 비리 예방을 위해 도청과 같이 내부직원 소통강화를 위한 토론헤를 만들어 교직원 모두가 직언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상황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명성철 의원(보령)이 대표 발의한 예산절감에 관한 조례제정

을 심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와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도민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의 전당 건립계획 및 백제문화단지 조성 운영 현황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충남 친환경 농업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의 도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인 시흥시청과 시흥교육청 및 학교를 방문해 교육혁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제261회 임시회를 마치고 이준우 의장은 “예산결산특위가 예산편성 전에 도청 현안을 점검하는 일은 예전에 없었던 사항으로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도청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포토의정



03월
18일

충청남도체육3단계 상생발전 워크숍

김기영 부의장은 도민행복건강 100세시대를 맞아 체육3단계가 상생협력하여 도민의 스포츠 참여권을 확대하도록 격려했다.



03월
28일

충청남도의회 정기총회개회

전직 도의원들로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우리도의회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했다.



04월
01일

타입캡슐 매립식

이준우 의장, 안화정 도지사, 김기영부의장, 구분청 행정부지사의 간부 공무원들이 충남도청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충남도청 대전00년 역사를 담은 타입캡슐을 충남도청 마당에 매립하였다.



04월
01일

사진으로 보는 충남도청 100년 史 전시회 개막 킷팅식



04월
04일

도청이전 기념식수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인화정 도지사가 행복충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날 내포 신청사 개청 기념식수를 타입캡슐광장에서 하였다.



04월
04일

전직의장단 초청 간담회

충남도청 전직 의장단이 신청사를 방문해 우리도의회 현황과 비전 등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및 안희정 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축하하며 대형 떡을 자르고 있다.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

04월
04일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여 정부는 충남을 서해안 시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핵심지역이자 불류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격려말씀을 하였다.

04월
0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의달 및 정신건강의달 기념행사에서 이준우 의장이
격려하였다.

04월
08일



이준우 의장은 화랑훈련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04월
17일



우리입니다. 장애를 넘으면 하
이준우 의장은 '제33회 장애인의날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에 참석, 축사와
장애인들을 격려하였다.

04월
19일

:: 포토의정

「제8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 지방의회 인사권 도입방안 지지 및 항소법원 설치 촉구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4월 30일 지방의회 발전방안과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에서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의회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지방의회 발전방

안 등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안건을 발굴하고 정부에 공동 대응하여,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국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와 박정현 정무부지사,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안건 협의 토론과 초청 청사를 현장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루어진 주요 안건은

▲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방안
지지결의문 채택의 건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건의의 건

▲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모두 6건을 채택해 중앙 관련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날로 증대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부정부패 없는 충남교육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4월 24일(수) 홍성도서관에서 충남교육계 인사비리 관련 “부정부패 없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은 “최근 충남교육청 부정부패 비리 문제가 전국의 화

젯거리가 되어 눈빛 초롱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하면서, “충남교육,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함께 충남교육의 봄, 충남교육의 희망 찾기에 나서자”라고 강조했다.

이준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충남교육이 작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충남교육

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이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 고려대학교 강수들 교수는 교육부패란 단순히 비리와 부정,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나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 소질과 재능에 기초한 꿈을 키우고 자부심을 갖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모든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행위가 ‘교육부패’라고 정의해야 현 사태의 본질이 바로 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부의장 삼교국민체육센터 준공식 등 참석

육센터 준공식과 백제의 미소길 개통기념 탐방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김기영 부의장은 축사에서 삼교국민체육센터는 2008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총공사

비 5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4년여만에 준공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생활체육으로부터 소외된 삼교읍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체육센터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당부하였다.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핵심사업인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5월중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백제의 미소길 개통기념 탐방행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7년여 걸쳐 백제의 미소길을 조성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백제의 미소길이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생태탐방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로 당부하였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으로 아름다워지는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다.

가족 구성원이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효’를 실천하는 마음에서 시작 된다. 효는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요 인류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 가족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근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며, 집안의 기둥인 노인이 그 역할과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제1 덕목이었던 “효”사상에 대하여 새삼 되돌아 본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을 삶의 터로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허전하다 못해 외롭기 그지 없다. 자식들의 전화 한통이라도 기다려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별일 없이 오순도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끝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열 달 동안 좋은 음식 가려먹고, 좋은 생각만 하며,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누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 하셔도 한없이 주고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과 달리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한 효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모는 스스로가 돌봐야 한다는 ‘효도는 셀프’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 아프지 말아야 하고, 늙어서도 돈이 있어야 존경과 대우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신체의 모발과 피부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라는 가르침과 같이 부모에게 드리는 ‘효’를 모든 덕목의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조상숭배와 경로사상 등 ‘효’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의 전통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평소에 늘 관심이 많았던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인 ‘효’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효’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효’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효’는 어떤 종교의 주장도 아니며, 어떤 특별한 사상도 아니다. 인간이면 행해야 하는 기본 상식이요, 도리이다. 효(효)라는 글자는 老(노인노) 아래 子(아들자)가 합쳐진 것으로 자식이 노인을 떠받드는 모양이다.

우리는 ‘효’를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효’는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다하는 ‘효’는, 자식들이 덕을 받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준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물질주의를 추구하던 서구사회도 다시 전통사상의 중요성을 느껴 회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와 반대로 전통사상을 버리고 물질만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 사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최고의 사상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세계적인 석학이며, 인류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장차 한국이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 사상이며,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지고 가야 할 제일의 문화는 한국의 '효' 문화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효'는 우리나라와 동양을 넘어 인류 보편적인 덕목(德目)이다. 이처럼, '효'라는 것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규율만이 아니라, 사회통합,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인류를 통합해낼 수 있는 위대한 가치인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대 간에 대화가 단절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효'의 중요성이 간과되면서부터 세대 간의 단절현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효'를 통해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고, 가정의 복원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달 5월, "효"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소고

교원평가제는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이다. 2005년 5월 2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을 보면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 교원이며 평가내용은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일선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05년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2010년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전면 시행되어 2011년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4년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17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래 18대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무산된 채 19대 국회로 넘



이은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어 오게 되었다. 교원평가제 실시로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교원 능력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우수 교원의 발굴 우대와 능력 부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다.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치열한 입학 과정에서부터 4년간의 전문적인 제반 교육 이론과 실습과정을 거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졸업 후 임용고사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등 자질이 사전 검증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평가대상 교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객관적인 평가 어려움, 동료교원 평가 시 온정적 평가, 동료 수업 관찰 시점과 평가 시기의 괴리, 서열화 및 동료간 갈등 유발 우려 등 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때, 현재도 적극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교원 평가를 중지해야 한다고 본다.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상대적 평가로 무능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제자가 스승을, 학부모가 담임을, 교사 상호 간에 평가하는 다면평가는 교육 현장의 가족적인 학교 분위기를 흔탁하게 만들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제일 먼저 법제화가 선결 조건이다. 다음으로 학교급별, 학급규모 교과목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 주체인 일선 교원의 무관심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교육 현장의 학교는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교육부와 지방행정기관은 피라미드의 바닥에서 단위 학교를 받들고 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일선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마음속에 평가를 떠나서 교직에 관한 자긍심이 넘치도록 온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하루, 이를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인사적체, 사기저하, 우수인력 충원 어려움 등 인사권 독립의 비실효성을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지방의회 인사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견제·균형에 기초한 권력분립 이념에도 위배되며 위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할 때 집행부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제도에서는 의회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다보니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그 자리에 맞는 책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지방의회 인사독립권과 의원보좌관제도가 지방의원이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기초인 것이다.

최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개선을 언급한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이 반복적인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뜻을 모아 지방의회 인사독립권과 의원보좌관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도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고, 의회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원들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도규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XXXX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 현황

총 7 건

제정안 3건, 개정안 3건, 변경안 1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 전문은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정활동 · 의안 · 의안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정 조 례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명성철, 유병돈, 김정숙 의원(3인)
찬성의원: 김홍장, 김장옥, 유익환, 이도규, 김용필, 맹정호,
장기승, 박찬중, 윤미숙, 조치연, 김종문 의원(11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와 도민 혈세를 방지하고 도민의 도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 도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 마련

| 주요내용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를 조사할수 있는 예산낭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제 정 조 례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정이유 | 충청도청이 2012년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편의 시설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 조기 이주정착 등을 위하여 이전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를 제정

| 주요내용 | 내포 신청사 이전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 목적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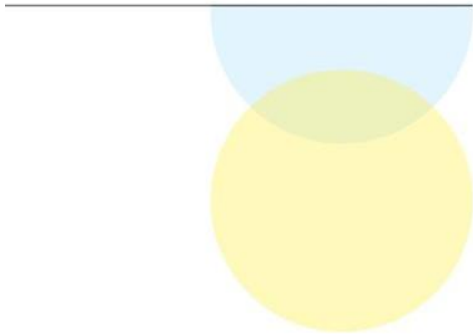
제 정 조 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정이유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정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의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회관시설의 사용 허가 · 제한 · 취소 규정하고 회관시설의 변상책임과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 관람료의 징수 및 관람권 발행, 관람 제한 규정 등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박문화,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이광열 의원(8인)
찬성의원: 윤미숙, 김득웅, 김종문, 고남중, 김홍열, 이종현,
이기철, 강철민, 맹정호, 유익환, 장기승 의원(11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정이유 | 농어촌 자녀장학금, 국가장학금, 학업우수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 수급자에 대하여 학교별 수업료 및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초과 지급 시 회수금액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 학교별 수업료 및 등록금의 범위에서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학생 선발인원을 각 의용소방대별 정원에서 각 소방서별 정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장학금 초과 지급 시 회수금액을 명확히 정함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남도교육감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정이유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026호, '12.8.13.)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도민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

| 주요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시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참관 요청에 따른 관련 규정 명시



기타 처의 타 리 안

- ⇒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도지사 제출 / 원안가결)
-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 원안가결)

5분발언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 4. 9)



우유급식 도내 제품 선정을



이진환 의원 | 천안 학교 급식용 우유로 도내 제품을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충남의 올해 학교 우유급식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생산되는 특정업체 점유율이 매우 높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일선 학교 대부분이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한 우유 납품업체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도내 낙농가 및 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 지역의 낙농가 및 업체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도내 생산우유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유관기관, 특히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격려를



맹정호 의원 | 서산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희망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정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셨다.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복지대상자가 없다면 아마도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없을 수 있다. 그분들의 땀방울이 우리 이웃을 살리고 있다. 이웃들에게 그분들은 놓칠 수 없는 희망의 끈이다. 그분들과 함께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충남도와 도의회가 응원합니다.

5 Minutes Speech

금산인삼 불법유통 근절해야



박찬중 의원 | 금산 작금의 금산인삼 불법·부정 유통사건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금산은 1500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인삼 종주지라는 역사적 배경과 국내 최대 유통단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외지인과 공모해 중국인삼을 금산인삼으로 속여팔고 짝퉁 홍삼을 유통시킨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금산 지역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는 최악의 위험사태까지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불법 인삼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충남도가 직접 나서서 인삼제조업체에 대한 암행감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실태 점검, 지속적인 교육, 근원적인 대책이 실현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

홍성 소싸움대회 유치제안



유기복 의원 | 홍성 충남 및 전국 제1의 축산단지 홍성군에 소싸움 대회를 유치할 것을 제안한다. 홍성군은 한우 6만3000두와 돼지 48만두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축산단지로서 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과 한·미 FTA발효, 사료값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한우 소비촉진이다. 매년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0곳 중 9곳이 경상·전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홍성군에 소싸움 대회를 유치하면 충청지역은 물론 수도권 소비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고 내포신도시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타당성 분석 및 타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소싸움 대회를 도입할 것을 당부한다.

5분발언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4. 18)

축산농가 경영안정 미흡



김용필 의원 | 비례 110KG에 35만원대에 이르던 돼지가격이 24만원대로 하락하면서 가목이나 인상된 사료값 상승 가운데 한돈농가의 경영이 더 악화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은 한돈농가의 체감위기를 해소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한돈(국산돼지고기) 농가의 경영 위기는 정부가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FTA 피해농가 폐업 보상 등 한돈 협회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일도록 충남도와 의회가 대(對)정부 건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또 도청 구내식당과 청양대학 등 충남도 산하기관은 물론, 초·중·고교 및 교육청 산하기관이 돼지고기 소비에 앞장서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민속씨름 활성화 필요



유기복 의원 | 홍성 서양에서 들어온 생활체육인 축구·야구·농구·배구·수영·배드민턴 등의 종목은 나날이 활성화되는 반면 우리 민족의 애환과 역사가 담겨있고 민족의 자존심이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인 씨름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사양길을 걷고 있다. 정부가 국민 체력증진과 씨름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씨름진흥법'을 제정하고 매년 음력 5월5일 단오를 '씨름의날'로 정했으나 자치단체의 후속조치가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의 씨름부가 시·군별 1곳에 불과하고 각종 체육행사에 씨름이 빠지는 것은 투자와 관심 부족의 문제이므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

소규모 어항시설 개선



명성철 의원 | 보령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최근에는 섬을 찾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면서 어항(漁港)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항은 아직까지 기본 기본시설인 방파제와 물양장(物揚場)은 물론 안정적으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조차 없는 곳이 많다. 또 선착장이 있어도 설치된지 오래됐거나 규모가 작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소규모 어항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내 퇴적 및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확보 등 실질적인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5 Minutes Speech

내포신도시 회전교차로



이중화 의원 | 홍성 내포신도시에 방문하신 분들은 도청앞 도로를 왜 지하차도로 만들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멋진 건물, 경관,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용봉산을 보며 운전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도청진입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 회전교차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과제로 보급을 추진 중이다. 회전교차로 신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정책의 장기효과를 위해 교통시설에 대로운 모델을 적용하여 도청방문객이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도내로, 전국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레 왕래하게 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교육비리 재발 방지



명노희 의원 | 교육 세 번이나 반복된 교육감 구속이라는 현안사태와 관련하여 교육계의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계 비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히딩크 축구 감독처럼 인맥과 학맥을 탈피한 용인술이 필요하며,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 포청천처럼 원칙에 따라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교육비리 사태해결을 위해 교육감을 보좌했던 간부들은 사퇴를 할 각오로 임해야 하고, 신임 부교육감도 교육감 권한대행이 아니라 책임대행의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한다.

충남 외국인 학교 불필요



김지철 의원 | 교육 충남도가 추진하는 충남외국인학교 설립 계획은 무모한 투자이다. 또 학교 설립 인가권자인 교육청과 지도·감독권자인 도의회와 협의과정도 없이 충남도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다. 충남외국인 학교는 2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국비 69억원, 도비 시군비 171억원에 민간은 겨우 60억원만 부담하게 된다. 소수 특권층 학생을 위하여 240여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꼴이므로 설립을 서두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회

행정자치 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 조례안 심사

예산낭비 방지에 발벗고 나선 충남도의회

|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예산절감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

충남도의회가 집행부 예산낭비에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16일, 명성철(보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도의 예산운용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제도로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와 발간된 사례집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도민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과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명성철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충남도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충남도청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충남도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으로 일부 경제적 부담 덜 듯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가 16일(일)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충남도 본청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이주 지원



1, 2 조례안심의

비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결 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김종문 의원**(천안)은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현재 이주지원비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조례가 의결된 후 안전행정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주지원비 조례가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청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매월 20만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이주지원비를 받게 된다.

| 충남도 노인회관 건립은 신도시내 통합건물 신축방안 강구 |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김홍장 의원**(당진)은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너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물었다.

♣**유병돈 위원장**(부여), ♣**맹정호 의원**(서산)은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노인회관 건립의 건은 별도 건물신축보다는 내포시에 아동, 청소년, 장년층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건물의 신축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김홍장 의원**(당진)은 충남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 헬기를 임차할 경우와 도에서 직접 구입시 비용문제와 도입헬기의 야간비행 가능성 등을 물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중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개방형직위로 조정되는 여성 가족정책관 직위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했다.

상임위원회

문화복지 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 도정현안보고 청취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도정현안보고 청취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장기승 위원장)는 4월 10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도정현안으로 「여성의 전당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 **윤석우 의원**(공주)은 공주에 소재한 여성정책개발원과 천안에 소재한 청소년 진흥원을 여성의 전당에 입주할 예정인데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도민의 혈세 189억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청 신청사 건물내 유·무상 임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성의 전당 건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조치연 의원**(계룡)은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은 조금한 행정으로서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신도시계획에 “발묘조장” 격이라고 질타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신규시설을 건립하지 말고 타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은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차원에서 기관들을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에 각종 신규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균형발전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소외받



1 여성가족정책관실 현안보고
2, 3 의원원 현안보고



는 지역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여성의 전당을 만들어서 융복합 행정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규모의 신규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행정원칙이나 예산편성 원칙과 부적합하며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무리하고 조금 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규정 마련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도청 신청사내에 건립한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관제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도

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4개 의원원 통합운영 방안 검토 주문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장기승 위원장)는 4월 17일(수) '12년도 의원원 회계결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경기도의원원의 통합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한 결과 경상비와 의약구입 등 연간 수익원이 절감되고 있다'고 말하고 '충청남도 4대 의원원도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추진해 볼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와 운영진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원원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조치연 의원**(계룡)은 '공주의료원 신축시 외부벽 마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100년을 내다보고 신축을 하는 만큼 냉 난방비 소요를 감안하여 외부 마감재 선택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김장옥 의원**(비례)은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절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원회

문화복지 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 현장방문

경기도의료원 방문

| 경기도 6개 의료원 통합운영에 대한 장·단점 배워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15일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하여 그동안 도내 6개 의료원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배경과 효율성에 대한 브리핑 받았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은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경영상 어려움과 통합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의료수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시스템의 통합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여 관리비용의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게 되고 집중과 선택으로 6개 의료원에 특성화 및 전문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통합의료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각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 **조치연 의원(계룡)**은 '6개 병원의 행정과장 등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순환보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통합의료원의 장점과 단점, 운영상 애로사항,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공공성 및 수익성이 의료원을 통합한 후 달라진 원



1 경기의료원 2 충주의료원

인이 무엇이며, 경기도에는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이 많은데,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 **김장옥 의원(비례)**은 '경기도 의료원의 인건비율이 69%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파주의료원의 간호사 이직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은 2005년 7월 1일 경기도내 6개 의료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주의료원 벤치마킹

| 흑자경영을 이어가는 충주의료원의 비결은?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16일, 충주의료원은 만성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의료원과 달리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원을 찾아 벤치마킹 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충주의료원의 경영방식과 예산 및 인력 운영상황을 꼼꼼히 배우고 의료원시설을 견학했다. 전날 경기도 의료원의 통합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한데 이어서 이를 연속 강행군을 하였다.

◆ **김장옥 의원(비례)**은 의료원이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리함에도 환자가 증가하게 된 배경을 물었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흑자경영의 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절차와 및 노조의 반발 및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 **조치연 의원(계룡)**은 '경영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득실은 무엇이고 노조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물었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충주의료원의 선진 경영시스템 대한 설명을 듣고 '심각한 적자운동을 하고 있는 충남도내 4대 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13년간 해마다 수익원의 흑자를 내는 병원으로 유명하며, 2012년 BTL방식으로 안림동으로 신축이전했다.

상임위원회

농수산경제 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 친환경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에서는 4월 10일 충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전양배), 한국 유기농협회충남도지부(지부장 백하주),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대전충남도지회(지회장 김완수)와 정책제안 간담회를 가졌다.

❖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업인의 소득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 단체와의 정책제안 간담회를 통해 충남 친환경농업정책의 폭넓은 이해로 의회와 친환경농업인과 소통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양배 회장**은 '친환경쌀 차액 현물급식지원사업 추진, 현행 유통센터 방식의 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양, 친환경농산물 및 유통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등 열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 **백하주 지부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능가를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완수 지회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보다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더 있고, 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하다보니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므로, 학교급식에서도 직거래 방식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홍열 의원(청양)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1/5정도 공급되는데, 시·군지역 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에



2



3

- 1 제261임사회 친환경농업정책간담회
2 즐거운밥상 3 현장방문(대호환경사업소)
4 현장방문(맷돌포구)



4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문하면서, 의회·집행부·교육청·농협 등 책임 있는 간부급들의 연석회의를 주장했다.

● **고남중 의원**(예산)은 '시장·군수들이 학교급식 지원을 교육비로 보고 있는데,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득응 의원**(천안)은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단일화와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있어서 성공 모델인 전남도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학교급식센터도 잘되는 곳을 벤치마킹하여 물 모델을 발굴하고, 시·

군이 주관하고 충남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종화 의원**(홍성)은 '급식센터가 유통센터형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도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고,

● **조길행 의원**(공주)은 '급식센터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재값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유통의 문제이므로 3농혁신의 방향을 생산보다는 유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방문

| 천안 사회적기업 ㈜드림앤챌린지, ㈜즐거운 밥상 현장방문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4. 15일 천안에 소재한 대학자원 연계형 사회적기업 ㈜드림앤챌린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인 ㈜즐거운 밥상 등을 방문하고 상황 설명을 청취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운영사례와 사회적 기업의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모색하고 시사점을 찾아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 당진 신평면 맷돌포구, 송악면 안섬포구 현장찾아 문제 해결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16일 당진 신평면 소재 맷돌포구와 송악면 소재 안섬포구를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어촌마을 태풍대책 추진 상황과 선착장 보수,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당진 석문면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대호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버 친환경재배 시범단지(569ha)의 쌀 GAP 생산과정, 친환경농업 추진상황, 농작업 위탁상황을 둘러봤다.

●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사업이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고남중 의원**(예산)은 앞으로 어촌·어항개발은 자연 친화적으로 하여 인위적인 환경 훼손으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할것을 요구했다.

● **김득응 의원**(천안)은 어항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는 없는지 묻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다시 한 번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종화 의원**(홍성)은 도내 소규모어항 보수·보강사업 대상지 현황을 묻고, 이러한 태풍피해 예방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어민들에게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당부했다.

● **조이환 의원**(서천)은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충남도와 당진시 관계자들의 원활한 소통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임위원회

건설소방 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조례안 심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원안가결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개정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토록 개정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10일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천안출신 유병국 의원은 기금의 사용을 제3조의 1호에서 8호조까지 명확한 사유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된 9호의 「기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기금 보유액 범위에서 충청남도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집행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심도 있고 포괄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했다. 이어서 김문권 의원(천안)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타 장학금 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기회를 부여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장학생의 정학, 휴학 등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장방문

충남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방문

| 내포신도시 연계 철도망 등 11개 대형 국가사업 조기추진 협조 요청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4월 15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과 주승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건담회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내포신도시 연계 철도망 조기구축과 평택·부여(제2서해선) 고속도로 건설, 보령·울진 동서 고속도로 건설, 충청권 철도 조기 착수 및 노선 연장,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서해안 항만과 내륙 연결도로망 구축,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대책, 충남 보훈공원 조성, 영유아보육료 국비지원 상향 등 충남도 최대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남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논산)은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방문하여 출항인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형 공사장 현장방문 우기대비 수해 상습지·도로공사 현장 안전점검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도내 대형 공사장의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행정에 주안을 두는 의정활동 펼쳤다.

◆유병국 의원(천안)은 지난 16일 83% 공정률을 보인 아산시 도고면 도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 방문에서 '5년간 진행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 인하여 여름철 우기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름철 우기전까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광열 의원(아산)은 '210여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지역의 여론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김문권 의원(천안) '현재 30%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선장·염치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도로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장·염치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는 2010~2016까지 6년간 공사 진행되어 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아산 및 천안, 평택 등으로 진입하는 교통량 분산에 많이 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1 건설위 조례안심의 2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기념촬영 3 양승조의원 현안사업설명 4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현안사업설명 5 현장방문-도고천



상임위원회

교육 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 조례안 심사

타당성 부족한 재산취득에 제동!

| 해양과학고등학교 제2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은 재검토 위해 보류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0일 2013년도 제2회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을 보류 처리했다. 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천안한서초등학교 외 5개교의 재산취득 및 남산초등학교 폐교재산 외 2건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실사 후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 **명노희 의원**(교육4)은 충남해양과학고 제2실습동의 활용방안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활용하지 않는 실습장은 매각하고 제2실습장은 추후 재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위는 또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청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심의기능 및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참관 요청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고자 입안되었다.



1 조례안심사

2 현장방문-시흥시청

☛ **김석곤 의원(금산)**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위원의 대상 및 설정 목적에
대해 묻고 향후 도시와 농촌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의 획일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금지대상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 현장방문

| 시흥혁신교육지구 현장방문을 통한
충남교육 발전 방안 모색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
철)는 4.15~4.16까지 이틀간 경기도 시
흥혁신교육지구(시흥시청, 시흥교육지
원청, 경기도 하중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가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
구(시흥지구)를 방문하여 새로운 교육협
력 모델 및 공교육 혁신 구축 현황을 살
펴보고 미래역량 인재육성 현황과 보편
적 교육복지 추진 현황 등 우수사례를 벤

치마킹했다.

이날 시흥시를 방문한 조남권 부위원장(교육)은 시흥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으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하는 계기
가 마련되었는데 공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교육지원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 **서형달 의원(서천)**은 지자체가 교육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면 지역사
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 **김지철 의원(교육)**은 지역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시흥지구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
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 **이기철 의원(아산)**은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의 차이는 무엇이고, 혁신교육지
구 사업은 언제까지 지원되며,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시흥교육은 어떻게 달라질 것
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 **이은철 위원장(교육)**은 교육청과 시에서 시흥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60억원
을 공동 투자하는 등 혁신적 행정으로 인해 시흥시가 행복한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
다고 추켜세우면서 금번 방문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의 우수사례 등은 충남교육 발전
을 위해 벤치마킹하고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내포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현장방문

신도시 건설현장 점검

|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집하시설 등 완벽한 조성 촉구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복)는 17일 내포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에 앞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으로부터 국비확보 및 도청이전특별법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서 **◆김용필 의원(비례)**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비확보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강력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은 국회를 방문하여 강력히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방문은 LH 보금자리주택 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집하시설에 대한 방문으로 진행됐다.

◆유기복 위원장(홍성)은 쓰레기 처리와 수거형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와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진에 대비한 튼튼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김기영 의원(예산)은 그동안 시설에 문제되었던 사항과 보완되었던 사항, 앞으로의 사항에 대하여 타 신도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행



1 현장방문-내보급자리주택 2 현장사진-하수처리장

착오가 없는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이 요구된다면서, 시설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전력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 **김용필 의원(비례)**은 최근 환경변화로 매우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이 늘어났는데 완벽한 감리와 하자발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법적 정비를 완벽히 하여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하수처리시설 위에 지어지는 농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이 거주민들에게 조속히 개방되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위 현장방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자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주요기관단체의 이전과 발맞추어 교육시설, 편익시설, 공동주택 등 정주요건 확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 및 집단에너지시설,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위원장 선임

|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위 부위원장에 김용필 의원 선임 |



김용필 부위원장
(비례)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복)는 지난 18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춘근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하여 그동안 공석이 된 부위원장 자리에 김용필 의원(비례대표)을 선임했다.

◆ **김용필 부위원장은** 앞으로 내포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명품도시로 조성되고 이를 위해 국비 등 재원확보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신도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위는 2010. 10. 18일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도청이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2013. 2. 5일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내포신도시의 건설상황 점검과 필요사항 건의 등 명품신도시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재정투자사업 점검

주요재정 투자사업 중 282건에 대한 보고 및 점검

| 충청남도 및 교육청에 대한 사업비 과부족 및 적정성 점검 |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길행)는 4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충남도청 및 교육청 소관 주요재정 투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사업은 2013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0억원 이상 예산투자사업과 2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비롯하여 도청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도민 관심사업 등에 대한 자료요구와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282건(도청 201건, 교육청 81건)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앞두고 사업비의 과부족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결산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 질수 있도록 한다.

첫날인 11일 실시된 충남도청 소관 주요재정 투자사업 점검에서 이종현 의원(당진)은 행담도 홍보관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1층 및 2층을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송악지구 사업자 선정이 미루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장기승 의원(아산)**은 3급이상 공직자 16명중에서 가족과 함께



1, 2 도 및 교육청 재정투자사업 점검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오지 않은 공직자가 12명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 **조치연 의원**(계룡)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유지가 90%도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처리 방법 등에 대해 물었다.

☛ **유병국 의원**(천안)은 농사랑 관련 사업은 도비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의 사례라며, 장애인 체육회 관련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둘째날 12일 충남교육청 소관 주요 재정 투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에서 ☛ **유병국 의원**(천안)은 연일 터지고 있는 교육감 구속수사 및 교육청 직원의 비리와 관련하여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업무보고서 내용 맨 처음에 직원들의 속

소 임차비 확보 보다는 인사비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비를 확보 하는게 우선이라고 질타하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인사비리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 할 것을 주문했다.

☛ **장기승 의원**(아산)은 충남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자리 이동과 관련된 모 일간지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을 수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부교육감을 교체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질타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향후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물었다.

☛ **이은철 의원**(교육)은 교육청 소속 2명의 국장은 참모다. 일선 교직원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도청처럼 홈페이지에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 일선 현장 및 쓴 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교직원들이 직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 **김용필 의원**(비례)은 학교 급식재료비가 652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에서 외지 업체가 위장하여 입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충남에서도 실제로는 외지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 **박찬중 의원**(금산)은 홍성관내는 지진발생 사례가 있는데 학교시설에 내진설계가 되도록 할 것과 예산확보에 있어서 학생의 도덕성 회복 및 인성교육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 **서형달 의원**(서천)은 사립학교에 대해 시설 투자비는 크게 요구하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현황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연구모임



- 1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 연구모임
-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 3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의원연구모임 구성원 명단

| 연구모임명 |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 대표자 | 서형달

| 연구목적 |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교육 개선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 마련

| 구성원(10명) |

구분	성명	소속
대표	서형달	교육위원회 의원
회원	김석곤	교육위원회 의원
회원	이진환	교육위원회 의원
회원	김홍열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회원	이중화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회원	김성윤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회장
회원	서문동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부회장
회원	장용환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사무국장
회원	류창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회원	강해자	충남교육청 장학사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 연구모임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4월 1일 천안소재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서형달 의원)은 현행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 연구 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창립대회에서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월중 학교 및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5~6월중 통일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8~9월중 통일교육기관과 안보현장 등 현장을 방문한 후, 10월중 통일교육 관련 토론회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형달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참고자료

| 연구모임명 |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 대표자 | 김중문 의원

| 연구목적 | 충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개선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창립”

각급 학교와 지자체 1만6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기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1만 6천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원들이 구성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은 4월 2일 창립총회를 열고, 비정규직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타시도 지자체 방문과 토론회

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김종문 의원(천안)을 대표로, 김지철 의원(교육), 김홍장 의원(당진), 김득응 의원(천안), 맹정호 의원(서산)이 참여하고, 임춘근 예산전자공고 교사가 간사를 맡는 등 비정규직 전문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를 맡은 김종문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은 865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9.4%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45만6,663명으로 공공부문근로자 123만4,193명 중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충남도내 1만 6천여명의 학교 및 지자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 및 타시도 지자체의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타 광역지자체 방문과 부문별 토론회를 통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감직 고용에 관한 조례' 등을 적절한 시기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모임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문 청양군 비정규직 대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충남도의회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출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〇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대표위원 이도규)이 충청남도의회에서 4월9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노인일자리창출 연구모임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 출범목적이다. 이 연구모임은 5~8월까지 충남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와 현장방문을 하고 9월에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11월까지 연구과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하는 계획으로 운영될 것이다. 구성원은 이도규 의원(서산), 김장옥 의원(비례), 조치연 의원(계룡), 유익환 의원(태안), 윤미숙 의원(천안) 등 5명의 도의원과 권오봉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장 등 전문가 5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이도규 대표위원은 출범식이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현황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향후 수시로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다 포부를 밝혔다.

|구성원(11명)|

구분	성명	소 속
대표	김종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간사	임춘근	예산전자공고 교사
회원	김홍장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회원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회원	김득응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회원	김지철	교육위원회 의원
회원	하태현	민주노동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회원	진영하	민주노동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회원	전말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조직국장
회원	이상문	청양군 비정규직 대표 (청양군 환경사업소)
회원	민지현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대표 (예산여중)
관계자	안상만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담당사무관
관계자	김낙현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실 담당사무관
관계자	김현기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무관

의원연구모임 구성원 명단

|연구모임명|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대 표 자| 이도규

|연구목적|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수입원 개발 및 삶의 질 제고

|구성원(10명)|

구분	성명	소 속
대표	이도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김장옥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조치연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유익환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윤미숙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권오봉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장
회원	김영운	천안시 노인복지관 관장
회원	박상규	아산시 시니어클럽 관장
회원	신기원	신성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회원	최은희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2013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충청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도의회 청사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03월
28일

예산군의회 제3대 前의원일행 견학



04월
03일

6.25 참전유공자회 서산지회 방문



04월
10일

예산고등학교 경제연구동아리 의회청사 견학



04월
10일

청양군 대치면 노인회 의회청사 견학



04월
10일

광천면 서해삼육초등학교생 의회청사 견학



04월
16일

예산 죽천2구 노인회 의회청사 견학



04월
17일

서산시 대신노인대학생일행 의회신청사 견학



04월
18일

당진시 양유리주민 의회청사견학



04월
18일

아산시 온양4동 주민 의회신청사 견학



04월
19일

논산 성동면 원북2리 노인회 의회청사 견학



04월
22일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회원 의회청사 견학



04월
22일

청양군 온적리 주민 의회청사 견학



04월
22일

홍성 서부면 원당리 주민 의회청사 견학



04월
23일

서산시 고북면주민 의회청사 견학



의회사무처 소식

1 직원 의정역량 강화 및 소통을 위한 연찬회 개최

충남도의회사무처(처장 구삼희)는 5월 1일, 2일 이틀간에 걸쳐 충청남도 학생 임해수련원(보령시 대천항로 소재)에서 “2013년도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각 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전직원(82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직원·부서간 화합과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and 효율적인 의정 활동 및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구삼희 사무처장은 개회식에서 내포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직장 and 가정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발

전을 위해 맡은바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회본연의 업무인 주민대표기능과 집행부 견제기능, 입법기능 등 본질적 역할수행”을 당부했다. 특히 구 처장은 모든 일정을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직원들에게 업무 연찬 and 더불어 상호간 교감의 장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찬회에서 법제처 조창희 사무관의 「자치입법편 집기 활용방법」,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예산·결산 심사기법」,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의 「입법지원 기본실무」 등의 순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의회사무





처 직원들은 5분 의정발전 자유토론을 준비해 충남도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기탄없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의회사무처 전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보좌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일본 시즈오카현 의장단 접견

일본 시즈오카현의 오구스 카즈오 의장을 비롯해 의원 2명과 비서관, 시즈오카현 한국주재원사무소 부소장은 4월 30일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였다. 의회청사 국제회견장에서 환담의 시간을 갖고 양 의회차원에서 교류확대방안을 제시한 후 양 단체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 직원 역량강화 및 화합을 위한 연찬회
2013. 5. 1. ~ 5. 2. 충청남도의회사무처



大韓民國 忠清南道와 日本國 静岡県 (시즈오카현) 友好交流協定 締結
2013. 5. 30. 4월 30일 (수) 회견장



JUNE

6월에 열리는 즐거운 축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6월중 | 해미읍성 일원



한산모시 문화제

6월 7일~6월 9일(3일간) | 한산면 한산모시관 일원



장항항 수산물 꿀갑축제

6월경(10일간) | 장항 물양장 일원



당진황토감자축제

6월중 | 송악읍 상록초등학교 필경사 일원

충남도청 문예회관 공연안내



+ EBS-TV 공개방송 「모여라 댕댕댕」

- 날짜: 2013. 5. 22.(수)
- 시간(3회 공연): 오후 2:30, 4:30, 7:00

※ 참여 신청은 '모여라 댕댕댕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5월 8일 0시 ~ 5월 15일 오후 5시)

- 공연문의: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T. 041-635-3817

다음공연 안내

날 짜	공 연 명	장 르	기획단체	공연횟수	공연내용
6. 12(수)	백제의 향(響)	국 악	국 악 단	1회	한국무용(부채춤), 오고무 등
6. 26(수)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한국청소년 예술진흥회	2회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가족 뮤지컬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등)
7. 10(수)	신명나는 국악 마당	국 악	연정국악원	1회	국악관현악, 국악가요 등

충남도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gnam.go.kr) 활용하기

1 충남도의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에 “의회안내”를 클릭하면 의장소개, 의회기능, 의회연혁, 구성 및 조직, 의회사무처 소식, 청사안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 우리동네 의원 찾기

상단 메뉴바에서 “의원광장 ➔ 현역의원”을 클릭하면 현재 재직중인의원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메인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중간부분 의원프로필에 의원전체보기를 클릭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3 회의는 언제해요?

회기 기간중 공지사항에 의사일정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서 “의회소식 ➔ 의사일정”을 클릭하시면 일정별 의사일정과 연간회의일정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무슨 안전을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의정활동의 하위 메뉴에 의안을 클릭하시면 충남도의회에서 처리되는 의안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싶을 때!

회기중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홈페이지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클릭하면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난방송도 고화질방송으로 다시보기하실 수 있습니다.



6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회홈페이지 상단메뉴바 참여당당 하위 메뉴 중 “의회에 바란다”나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글을 쓰실 때 실명 인증은 공공아이핀으로만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를 클릭하세요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